

탑승률 100% 여수 낭만버스 잘나간다

공연+시티투어 접목 인기몰이
뮤지컬 선보이고 이벤트 보완
여수 대표 관광상품 자리잡아

버스로 여수 도심을 돌면서 시티투어와 뮤지컬, 버스킹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여수 낭만버스 -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탑승률 100%(퍼센트) 행진을 이어가며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첫운행을 시작한 여수 낭만버스 버스커가 9회차인 지난 5월 26일 기준 100%의 탑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운행 첫 해인 지난해 평균탑승률 98%, 탑승인원 1535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5월 말까지 탑승률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여수 낭만버스는 시티투어에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것으로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해 12월까지 매주 금·토·공휴일 등 총 39회 운영됐다.

지난해 탑승객은 1535명으로 평균 탑승률은 98%에 달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인기 요인은 버스커 공연과 시티투어가 접목된 특별 관광 상품인 점, 여수밤바다야경 등 여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버스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출발 소호동동다리~돌산대교~거북선대교~종포해양공원 등을 돌아보는 동안 노래와 함께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 펼쳐지고 관광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처럼 여수 낭만버스 등 주요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여수를 찾



'여수 낭만버스 -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탑승률 100% 행진을 이어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은 관광객은 1500만명을 훌쩍 넘긴 1508만 5000여명을 기록했다.

여수시는 이 여세를 몰아 올해 총주 수 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2018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에서 시티투어 '여수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관광활성화 운영사례로 발표했다.

여수시는 또 지난해 버스 탑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올해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우선 낭만버스 공연을 연극에서 뮤지컬로 변경해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연 주제도 세 오정이 낭만버스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야기로 꾸며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트럼펫 연주자가 가미된 음악 밴드가 신규 추가돼 탑승객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족·친구·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엽서 보내기 등 특별 이벤트와 함께 SNS 탑승후기 작성 이벤트도 새로 보완했다.

탑승객들은 여수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된다.

여수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행되며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소호동동다리, 여문문화의거리, 돌

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을 거치는 2시간 코스로 운영된다.

탑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며 요금(여수시민 50% 할인)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 5000원, 미취학 아동 1만원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여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탑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된 LG화학 여수공장 직원들 수년째 지역 청소년 소원 들어주는 사랑나눔 눈길

여수국가산단 내 지역 대표기업인 LG화학 여수공장이 수년째 지역 청소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나눔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여수공장 직원들은 지난 달 29일부터 3주 동안 여수지역 청소년의 방과 후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돼 청소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봉사 활동을 펼친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니데이를 통해 그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 냉장고, 정수기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 것을 비롯,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보수 작업과 (우천용) 야외의막 설치 등 환경개선 활동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LG화학 지니데이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 내부 리모델링이 시급한 센터에는 리모델링,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고장난 센터에는 해당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각 센터별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LG화학 여수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청소년의 방과 후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공기청정기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제공>

여수지역 내 14개 결연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젊은 꿈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지니데이'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LG화학 여수공장의 대표 청소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해 올해 9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홍중철 LG화학 여수공장 HR 담당은 "지역대표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니데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외국인 선원 가이드북 790부 제작 배부



여수시가 외국인 선원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선원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선원회관에서 외국인 선원가이드북 전달식(사진)을 열고 174개 어업사업장에 790부의 가이드북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선원가이드북은 직업 특성상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선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선원회화집과 생활안내 등이

며 외국인 선원 수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 국어로 제작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선원가이드북이 외국인 주민들의 국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8년 1월 1일 기준 6292명이며 이중 수협중앙회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1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 하루에 돌아보세요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 운행 시작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를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가 지난 2일 운영을 시작했다.

여수 오동도와 이순신전망대, 광양 장도박물관, 보성 대한다원, 태백산맥문학관,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는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는 매주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운영된다. 탑승시간은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오전 9시30분이며, 10시30분 엑스포역에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여수행 열차를 타고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이 곧바로 광역시티투어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광역시티투어의 1회 운행 정원은 40명이며 탑승장소인 이순신광장과 엑스포역에서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8000원, 초중고 학생 2000원, 장애인·군인·경로우대자는 4000원이다. 관광지별 입장료와 식사비는 탑승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광역시티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여수-순천-광양-보성을 잇는 남도바닷길이 선정돼 이뤄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도시 미관 해치는 공중케이블 정비키로

12월까지 국비 12억여원 투입
주요 관광지 전주·통신주 정비

여수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나선다.

이번 정비는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주요 관광지 9곳 전주와 통신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종포해양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고소천사벽화골목, 수산시장, 서시장, 계장백반거리, 여수여고, 여수고, 흥국사이다.

시는 사업기간 전주와 통신주에 설치된

방송·통신선 장비, 건물 외벽에 난립한 방송케이블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2억43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18년도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지역에 선정되며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와 지역 방송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양우내안 아파트

백운광장역 상가 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4일 입찰 예정

내가가 공개입찰 예정

상가 전용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 01 광주지하철 2호선 백운역(예정)초역세권
- 02 백운교도로 철거 및 지하도 건설(예정)
- 03 200M 스트리트 수직형 상가
- 04 사통팔달 교통특권
- 05 초대형 남구 도심공원 조성(예정)